주제별 자료집 1

통·일·세·대

자·주·여·성

기획 1 북한여성 바로알기

기획 2 전여대협

민족경북대 제 10 대 자주 총여학생회

철조망에 가로막혀

최은수

장백산 천지에서
철조망 분계선까지
세계의 평화들과 함께 오면서
보았습니다. 거기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아줌마
길거리에 나와 외치는 것을
맑고 초롱한 어린 여자애
언니 따라 가겠다고 맨발로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산과 저 들 집들과 하늘과 강이
남쪽 그 어느 동네와 다름니까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너무도 억울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도 병신같이 살아 왔구나
개성 지나 판문점에 오면서
럭럭 가슴이 막히고 몸이 떨렸습니다
이국의 병사가 가로막는 철조망 앞에서
차라리 몸 먼저 철조망에 걸려
너덜너덜 살점으로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내 살로 그 철가시 녹여내고
혼이라도 자유롭게 오가고 싶었습니다
이 땅
내가 나기 전부터 막힌 땅
풀어헤치고 싶었습니다

글 순 서

● 여는시 1

● 기획1 북한여성바로알기 4

● 애국학교 12

● 기획2 전여대협 14

● 전여대협 출범식 20

기획 1

북한여성 바로 알기

1. 들어가며...

북한여성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북한에는 이미 '남녀평등'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 실시되어 있어서 여성의 지위문제에 관한 한 북한은 낙원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여성해방은 아직 멀었고 국가시책에 따라 할 수 없이 노동을 하므로 여성의 생활은 전보다 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 등 전문직에 남녀차별이 적고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남한보다는 앞서 있다. 또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라는 압력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공박할 만큼 나쁘지는 않고 심지어 이 부분만은 우리보다 앞선 점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직업의 성차별이 남한보다 덜하고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즐기는 향락산업이 없으며 남성이 여성을 도구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같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

한편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유하고 자녀의 성공을 통한 대리성취로 자아의 실현없이 사는 남한의 고학력 주부의 삶보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여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전체사회에 공헌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여성들도 많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 비해 아직까지 많은 이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요소들로 인해 가정에서의 남녀차별은 남한과 다를 것이 없고 제도와 사고와의 괴리로 인해 남한에서보다 여성들의 고충이 더욱 심하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원년을 맞아 모든 이들이 자기자신의 위치에서 나름의 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우리의 통일이뤄가기의 첫발을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작은 하나됨으로 일구어 갔으면 한다.

2. 북한의 여성정책

북한의 여성정책은 1930년대 고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면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의 기본방향을 밝히면서 일괄된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는 항일 무력투쟁의 과정에서 보여준 여성의 높은 투쟁의식과 희생이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관한 기존관념을 깨뜨렸으며, 여기서부터 여성을 사회적으로 동원, 사회주의의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할 필요

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여성정책은 투쟁의 과정속에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정의 기능이 남성의 특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남편을 부르조아에, 부인을 프롤레타리아에 비유하면서 스스로는 빈곤해지는 반면 자본가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공장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정주부의 활동은 남편의 권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반면 자신의 무력감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내에서 가족관계는 정서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것이며 남성이 재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르조아의 아내들은 매음녀에 불과하다며 사유재산의 폐지를 역설하였다.

북한에서는 1946년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선포하여 "...국가,경제,문화,사회,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법령은 9조로 되어 있고 '시행세칙'총29조를 포함하여 '여성인권 유린의 온갖폐해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평등법령'하나로 여성해방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자 여성들이 남성을 앞지를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인민의 반수가 참가하지 않는 정권은 참된 인민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여성들의 투표권 행사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근로여성을 위하여 '탁아소 사업'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곧 이어서 혼인관계법규들을 제정하여 결혼,이혼의 자유로서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붕괴시키고 1947년에 호적을 없애고 신분등록제도인 공민증제도를 실시하여 가족주의 내지 혈연과 문벌을 없애려 하였다. 그리하여 18세가 넘는 가족성원은 가족적 단위로부터 개체적 존재로서의 법적위치를 부여받았다.

무엇보다도 1946년 3월의 토지개혁과 1958년 8월의 개인 상공업의 전면 국유화 조치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물질적 기반을 무너뜨려서 가장의 권위와 대를 잇는다는 가계관념을 무력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가족 개개인을 사회활동에 참여시키게 되어 이기적인 친지관계나 혈족관계 위주의 가족개념을 뛰어 넘어 모든 인민을 집단주의 기풍아래 하나로 묶어 세우게 되었다.

북한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켜 산업사회에 돌려야 한다'는 기본노선에 의해 시작되었다.

여성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가. 헌법

북한에 있어서 헌법은 '공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지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히 1946년에 선포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 의하면 '국가,경제,문화,사회,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평등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평등법의 선포로 북한여성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과 교육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법령은 또 혼인, 가정생활에서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과 공창,사창가,유흥업소 등에서 자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유린의 온갖 폐해를 금지하고 있다.

나. 가족법

북한의 가조관계법은 첫째, 가족성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며 둘째, 부부는 그들 상호간의 권리,의무에서 완전히 평등하며 세째, 자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모친은 부친과 평등하며 부모에 대한 관계에 있어 딸은 아들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우리식 대로 살자'는 구호가 말해주듯 전통윤리와 사회주의 이념과의 올바른 결합을 모색하고 있다.

다. 노동법과 모성보호

1978년 공포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은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이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동이며, 모든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거할 것(제3조)과,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제4조 및 5조)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2장 전체는 노동이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했다. 동법에서 여성에 대한 규정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탁아소,유치원의 설치(제31조), 동일노동 동일임금(제37조), 여성노동자의 보호(제55조), 산전산후휴가규정(제66조) 등이 있다.

제15조,74조 : 법적으로 만16세부터 시작하여 남자 만60세, 여자 만55세까지 노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성의 취업률은 총 취업인구의 48%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6조 :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한다. 노동의 강도와 조건에 따라 7시간 내지 6시간으로 하며 3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31조 :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은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7조 :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노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 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 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연령,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59조 :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기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 노동을 시킬 수 없다.
제66조 :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받는다.
제76조 : 산전,산후 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 노력일을 준다.

라. 탁아소

북한에는 일,주,월 탁아소 이외에 농번기의 농촌 어린이들을 위한 계절 탁아소도 설치돼 있다. 일 탁아소는 작업반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돼 있다.
주,월 탁아소는 평양,함흥,청진 등 3개 도시에는 2개 구역당 1개소가, 일반도시에는 2~3개소나, 군소재지는 1~2개소가 설치돼 있다.
산모의 경우 상오 10시와 하오 3시에 탁아소에 찾아와 30분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작업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북한에서의 사회적 노동은 앞서서 이야기 해듯이 모든 인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여성또한 한사람의 인민으로서 노동을 하며 남한에서의 여성들이(전업주부이거나 취업한 여성이거나)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어지는 것에 비해 북한의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적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받는 것이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가부장적 위계질서는 사라지고 남녀간의 평등권이 부여되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을 규제해온 가사노동과 특히나 육아에 있어서 사회화가 제도적으로 올바로 서있다.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의 진출은 어느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9~21%, 도인민회의 20~25%가 여성의석비율이다. 더구나 여성대의원은 대부분 재선이상의 다선을 기록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의석비율이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100%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 볼때 제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당국이 체계적으로 여성에게 일정비율의 의석을 배분해온 의식적 노력은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3. 삶 속에서 본 북한여성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정책들은 북한여성을 바로 알기엔 너무나 제도적인 자료여서 무언가 비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딱딱한 자료에서 벗어나 좀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작가 조광동씨가 저술한 북한방문기 '더디가도 사람생각 하지요'의 책에서 그들의 삶을 잠깐 엿보기로 한다.

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에 관하여 -- 여대생 가방이 크다

북한의 여대생들을 보면 모두 묵작허고 커다란 책가방을 들고 다녔다. 남쪽으로 보면 남자대학생들이 드는 무게 정도의 가방이었다. 핸드백을 들고 다니거나 노트와 책 몇 권을 들고 다니는 여대생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화장기가 전혀 없는 여대생들이 초록생 교복을 입고 무거워 보이는 책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북한 여성들로부터 어떤 저력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하다. 북한을 가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문지의 안내 선생들이 모두 여성들인 것부터가 다른 인상을 심어 주었다. 방문지 설명을 할 때 한복차림의 안내 여성들은 정중하고 다소곳하면서도 물 흐르듯 거침없이 외어 가는 안내를 했다. 남자들한테서는 남한 남성들과 크게 다른 체취를 느끼지 못했는데 여성들에게서는 남쪽 여성들과 무척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화장을 하지 않고 검소해 보이는 외모와 순박하고 활달한 성격이 우선 금방 친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나라와 인민을 위해 건설하곻 봉사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고 딱딱한 사상문제나 이론적인 대화들을 익숙한 솜씨로 전개하는 것이 마치 남성들의 전유뮬이라 역할을 상당히 빼앗아 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모습은 건설장에서도 나타났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공사장에서 흙을 나르고 무거운 짐도 운반하는 등 거친 일을 하고 있었다. 새벽 한 시나 두 시쯤 밤거리를 걷다 보면 여성 청소원들이 도로 청소를 하는 것이 보였고 공휴일에도 큰 솔이 달린 청소차를 운정라며 도로 한복판읖 가는 것도 여성들이었다. 쓰레기 휴지를 마대 주머니 같은 것에 담아 운반하는 화물 트럭 위에 앉아 있는 여성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평양 근교 어느 농장을 찾아갔을때 탁아소 여선생과 악수를 하는데 손이 하도 거칠고 서걱해서 하마터면 악수하는 여성의 손을 내려다볼 뻔했다. 남자인 내 손이 너무 부드러운 것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왔다. 탁아소 선생은 자신의 손이 거친 것에 여성작이;ㄴ 부끄러움이 들었던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북한 여성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했더니 "여성들이 건설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성 당사자들에게 "고생 많으시죠"하고 말하면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통일 사업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하고 오히려 나를 격려한다. 남성들과 똑같이 일을 한 여성들이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아직도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은 남쪽 가정구조와 비슷한 것 같았다.

남성들처럼 일하면서도 여성적인 것을 많이 가진 것이 인상적인 북한여성들의 모습이었다.

나. 북한의 탁아소에 관하여 -- 선생님이 제일 좋습니다

"정양회입니다."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하는 아이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다.

"다섯 살입니다."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제일 좋습니다."
-엄마,아빠가 들으면 섭섭하겠다. 왜 선생님이 더 좋을까?
"악기도 많이 배워 주고 공부도 배워 줍니다."
-엄마,아빠는 안 배워 주는가 보구나.
"아네요...."

두 살에서부터 일곱 살 어린이들 5백명이 있는 이 탁아소는 주탁아소라고 했다. 아이들을 월요일에 갖다 맡기고 토요일에 찾아가는 탁아소였다. 출장이 잦은 엄마나 밤일을 하는 의사업마가 많은 이 주탁아소는 유치원도 겸하고 있었는데 건평 1만2천평의 5층 건물로 20년 전에 건립했다. 이 탁아소는 규모가 다소 큰 것에 속하는 것으로 평양시내에 이런 규모가 대여섯 개 된다고 하며 2~3백 명 규모는 "가뜩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탁아소는 매일탁아소라고 해서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는 것이다.

부모들이 일주일씩 아이를 쉽게 떼어 놓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울고 심란해 하고 아이들도 그럽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 탁아소에다 아이들을 맡겼었는데 첫날을 허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만에 오니까 아이가 반가워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설을 늘어 놓았습니다. 2주만 지나면 인차 익숙해집니다. 성격이 심한 아이들은 한달정도 갑니다" 탁아소 원장 김명순 씨가 설명했다. 집에서 보다 더 잘 먹이고 재미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탁아소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

교양원과 보육원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돌보고 있었는데 교양원은 3년제 교육대학을 나온 교사이고, 보육원은 6개월간 보육원학교를 가서 악기,노래,위생지식, 영양관리 등을 익힌 보모이다. 기자가 방문한 이 탁아소는 500명 어린이에 교양원 30명, 보육원 70명, 기타 관리직 70명이다. 보통 보육원 한 사람이 7~8명의 어린이를 맡아서 돌본다고 한다.

탁아소는 '기본적인 탁아소 과정안'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탁아소가 원칙적으로 같다고 한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한 후 식사를 하고, 자유시간을 가지고 놀다가 10~15분 수업을 하고, 점심,낮잠,간식,과외놀이,저녁식사를 한 후 TV시청 등 놀이를 하다가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잠을 재운다. 수업시간이나 과외놀이 시간에는 국어,지능놀이,셈세기,위생교육,예절교육,악기,노래교육 등을 시킨다.

탁아소 교육은 북한에서 커다란 역점을 두는 것으로 해방 직후에 3.8탁아소를 설립,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한다. 보건전문가 손필중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라의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 직후 우리는 '어린이가 나라의 왕이다.'하는 구호를 내걸고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건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갔습니다. 탁아소가 가정에서 키우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군중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김일성 수령이 평안도 개천지구 탄광마을에 들렀다가 그 지역 탁아소를 들렀습니다. 당시 수령님은 동네를 가면 탁아소와 유치원부터 찾아갔습니다. 탁아소를 가보니까 방이 추웠습니다. 당위원회 지배인 사무실을 가보니 건물도 좋고 실내가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탁아소 건물과 지배인 사무실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불꽃이 됐습니다. 전국에 이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다. 하나될 남북한 -- 보고 느낀 북한

3주 동안 열심히 듣고 물어보고 토론했지만 북한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애정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해 보고 싶었지만 떨어져 산 경험과 의식 구조가 너무나 달랐다. 사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때마다 좌절과 아픔이 송곳처럼 쑤셔 왔다. 그러나 그렇게 다르면서도 정이 들고 감정을 통하게 하는 핏줄의 힘은 무서운 데가 있었다.

남한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하고 좋은 말과 얼굴을 먼저 실천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이 화해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비서의 긍정적인 것을 남한정부가 먼저 말하고 신문 같은 데서 보도해 주면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북한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배우는 자세를 취한다면 북한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면서 남한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가끔씩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하는 질문들을 했는데 나는 "사람들이 소박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도덕성과 정신력이 큰 것 같습니다."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한이 이 도덕성과 정신력을 배울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북한을 떠나오면서도 나는 그 생각을 했다. 통일대화를 하려면 남한은 도덕성과 정신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4. 나오며...

부족하나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여성해방의 노력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사람들의 인식속에서 여성해방이 이루어졌는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어느 국가보다도 제대로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북한의 경제적 낙후성들로 인해서 여성의 노동의 강도가 남한 여성들보다 훨씬 힘들고 그에 대한 배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적다하더라도 그들의 노동의 댓가는 그들속에서 너무도 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혹 텔레비젼에 나오는 북한여성들의 옷차림속에서 그들의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우리모두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느낀다. 북한여성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실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터무니

없이 부족했고 나와있는 몇권의 합법적인 책들은 하나같이 교묘한 어구로 반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니 북한사람들의 생활을 북한에 대한 이해없이 우리, 자본주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객관성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반북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북한에 대한 좀더 자세하고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문이 열렸으면 한다.



통일열사 그 시대의 사상을
이만의 가슴에 통일조국으로 부활시킬

4.9 이재문 · 여정남 통일열사 정신계승주간

민족복현의 살아있는 신화!!
민족복현의 자긍심!!
이재문 · 여정남 통일열사님의 조국사랑을 배웁시다.

통일열사를 생각하며...

여기 사월의 햇살아래로 저 푸른 자유의 하늘을 향해 겨울밤의 전통과 역경을 딛고 새파란 잔디풀처럼 되살아나는 두사람의 전사가 부활이 생명으로 달려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구자로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 정의와 용기와 사람을 버릴 수 없게 하는 불사조로 살아 이만 복현인의 가슴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열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민족복현이 그대에게는 무엇인가, 민족복현은 강의실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다. 일청담에도, 무심하듯 지나가는 플라타너스 나무 우거진 사랑길 위에도 민족복현은 있다. 우리의 주변 곳곳에 민족복현은 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라. 민족복현에 대한 자긍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가를. 당신의 뇌수와 당신의 심장과 당신의 혈관 수만킬로의 흐름 바로 그곳에 우리의 자긍심이 비로서 살아있음을, 그곳에서만이 민족복현은 비로서 무한한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정의와 용기로서 살아 민족과 민중과 함께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꿈틀거려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음을 직시하라.'고

1975년 4월 9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온몸으로 항거하시다 형장의 이슬로 산화해 가신 두 분의 민족복현 선배님이 계십니다.
시월의 햇살 아래로 저 푸른 자유의 하늘을 향해 겨울의 진통과 역경을 딛고 새파란 잔디풀처럼 되살아나는 두 사람이 전사가 달려옵니다.
그들은 이리의 선구자로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 정의와 용기와 사랑을 버릴 수 없게 하는 불사조로 살아 2만 복현인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열사가 시대정신으로 산화해가신지 20년, 이제 더이상 추모식을 준비하지는 맙시다. 구궁의 일념으로 살아오는 열사의 부활은 이만학우의 가슴속에 맞이 합시다. 민족복현의 시대정신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95년 민족사의 대전환기! 통일열사의 정신이 95년 민족복현의 시대정신으로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통일열사의 부활 그 구체적 자긍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마침내 민족복현의 빛나는 신화를 전국 백만학우의 가슴가슴에 확산시키겠다는 결의로 충만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4.9제를 준비합시다.

선배님들의 조국사랑과 통일열정을 배우기 위한
95 이재문·여정남 애국학교에 참가합시다.

기획 2
전 · 여 · 대 · 협

전여대협이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여학생회의 전국 연대조직인 '전여대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전여대협 건설 준비기

1.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 시기

(1) 연대사업의 필요성

여학생 대중조직이란 여대생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결정적 담보물이며, 자치조직, 생활조직, 정치조직으로서 여대생의 자주성을 튼튼히 보위하고 올바로 구현하는 조직만이 참다운 대중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 학교, 한 지역의 조직만으로는 사상에서부터 정보, 실천에 이르기까지 협소함과 자기만족적 태도, 전망부족 등의 고립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조직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세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학생 운동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보장해 준다.

한국의 여성운동, 여학생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합니다. 교육과 구체적 사업방향과 조직적 과제를 논의, 집행하는 가운데 분산이 아닌 집중 있는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학생 운동의 대중적 지지와 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학생 운동, 나아가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보장해 준다.

한국의 여성억압구조는 너무나 강하고 거기에 대응할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패배감과 무력감에 젖어있기에는 한국 여성의 모습이 비참하고 조국의 운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기에 힘이 약할수록 연대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개인의 목소리보다 여럿의 목소리가 크고, 그것이 통일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 여학생 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내고 세력을 확장하여 반여성적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여성운동의 모습상 학교간, 단체, 기층 여성과의 연대는 여성운동의 방향을 보다 확고히하는 방편입니다.

세째, 연대속에서만이 모범의 전파와 경험의 축적이 보장된다.

여대생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창조적이며 장기적인 사업태도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정보와 모범을 따라 배우고 그 오류 또한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큰 힘과 성과를 만들어 가기위한 노력으로 연대사업을 통해 현장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함께 힘을 합쳤을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큰 성과를 내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부문계열에서 지역적 전국적 연대를 하면서 전국 연대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87년 6월 대국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 운동은 각계급, 계층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자기조직, 지기운동의 전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그 속에서 부문 계열운동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전여대협 또한 많은 연대 투쟁의 경험 속에서 그 성과점을 총화하면서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 연대조직을 일구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여대협이라는 전국적 연대조직을 건설하고자 89년 처음 건설 준비위라는 모임을 건설하기전까지 우리 여학생운동의 맥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전여대협 건설을 준비한 6기까지의 평가, 그리고 그 속에서 건준위 제7기를 건설 제1기로 일대 도약하려는 지금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건준위 이전의 상황

70년대 후반부터 '선도적 투쟁'이라는 학생운동전반에 걸친 흐름과 함께 진보적 여학생들이 비합법적 연구 써클을 운영하면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하하려는 사상적인 모색과 변혁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 나갔습니다.

83년 이후 학원 자율화 조치로 대중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제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투쟁을 여회단위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TOMBOY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등)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비합법 써클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시 파쇼헌법철폐, 군부독재타도 등의 투쟁과 함께 여학단위에서는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족법개정 투쟁 등 민주헌법에서 담겨져야할 여성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군부독재타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여학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어려운 상화속에서도 남아있는 간부들이 결의를 하고 투쟁주체를 세워냈으며 서울대, 고대 성대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학내시의, 가두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연대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운동을 풀어나갈 수 있고, 더 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고 87년 서울지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서여대협)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여대협 발족 이후 각 지역 여대협의 발족이 속속 뒤따랐으며 명실공히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지도, 집행해 갈 조직을 건설해 왔습니다.

이미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88년도 하반기에는 올림픽 반대투쟁에 결합하여 매춘올림픽 반대투쟁을 여성단체들과 공동투쟁으로 벌여냈고, 주한미군부대를 중심으로 AIDS추방운동도 함께 벌였습니다.

이후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잇따른 여러 지역 여대협은 여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여학생운동의 성장으로 자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기운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89년 평양축전에 7센터 참여 및 150여 명의 민족통일여학생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많은 지역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임 자리에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전여대협)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전여대협 건준위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전여대협 건준위 시기

89년은 여학생 운동에 있어서 질적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축전투쟁을 계기로 여학생 운동은 청년학생 운동에의 자기내용으로서의 복무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여대협 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제 여학생 운동은 전국적 조직을 내어올 준비를 하고 이념에 따른 여학생대중운동, 대중투쟁을 벌일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총화할 그릇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준위 6기까지 활동상을 살펴보면

87년 지역 여대협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89년 평양축전을 계기로 여학생회의 전국적 논의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에 자기 내용으로 복무하면서 부문 운동으로서 여학생 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정치투쟁을 개척, 고민하게 되었으며 여학생운동의 투쟁성이 고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립, 분산된 여학생 운동 조직의 결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전여대협 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는 성과를 안아왔습니다.

90년, 91년에는 전여대협 간부수련회를 벌여내면서 연대의식이 고양되고 그로인해 지역단위 결속력이 높아지는 성과를 안아왔으며 전국적인 정책단위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만들어 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서여대협에서 제기한 취업차별 철폐투쟁을 함께 벌일 것에 대한 논의들을 이루어내고 또한 지속적인 지역사업교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92년에는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을 대대적으로 일궈내면서 사회단체들과 공동대응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면서 제도적으로 성폭력을 추방시켜 나가는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랜기간의 투쟁속에서 결국 성폭력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점을 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대선과 결합하

면서 여학우들의 생활적 요구로부터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넓게는 민주정부의 상 속에서 성폭력의 제도적 제재, 모성보호의 제도적 보장 등 여성부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선, 대선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93년에는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투쟁을 벌여내면서 주한미국의 문제를 폭넓게 여론화시켜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었고 함께 투쟁했던 많은 여성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가 함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국조직을 중심으로 세워내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94년에는 양애리학우 구명운동을 벌여내면서 내 옆에 있는 학우의 아픔을 나누고 가정폭력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투쟁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내지 못하고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모색하기는 하였지만 적극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지역적인 한계와 함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조직이 투쟁속에서 건설된다고 하였을 때 전여대협은 건설준비단계에서 이와 같이 시기별로 제기된 큰 투쟁속에서 많은 한계점과 함께 내부적 성과점들을 가지면서 일구어온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매년 수련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속에서 전여대협 건설을 위한 토론과 여학생 운동의 방향과 투쟁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전여대협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지역여대협의 상황을 총화하고 지역 사업의 교류를 통해 모범을 발굴, 전파하려고 하였으며, 지역여대협의 올바른 자리매김으로 전여대협 건설의 기틀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논의력있는 대표자회의가 보장되지 못하면서 여학생운동의 통일적사상을 내어오고 명실상부한 지도조직으로서 전여대협의 위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여대협이 학우들과 여학생회 일꾼들과 결합한 장은 주로 전대협, 한총련 출범식과 같은 전국의 백만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한마당'이라는 형식을 빌어서였습니다. 한마당의 자리를 통해 기간의 활동과 함께해왔던 투쟁을 총화하고 더욱더 투쟁의 결의를 드높였습니다. 나, 내 단위만이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나와 같은 내용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다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단위마다의 모범을 들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하는 결의와 힘을 받고 헤어지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위에서부터 내용성있게 준비되고 모아지는 자리로서는 부족함을 많이 보였습니다.

II. 전여대협 건설

이제 지역조직 강화에 기반한 전여대협 건설로의 기간의 과정을 약평하면서 전여대협 건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짚어봐야할 시기에 왔다고 할 것입니다. 전여대협 6기까지 일구어온 지역 여대협의 안정적인 발전의 성과를 받아안으면서 전국적 연대조직의 일대도약을 일궈야할 때입니다.

작년 전여대협 건설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였고, 94년 전여대협 대표자들의 결의는 과히 전여대협 건설의 구체적 고민을 하는데 원동력이었다고 할 만 한 것입니다.

전여대협이 이전처럼 시기적으로 튼 투쟁에서만, 그리고 한마당이나 수련회와 같은 행사속에서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기층에서 존재하는 공통적인 문제를 지역단위에서 총화해 내고 그것이 전여대협 회의 속에서 다시 논의가 심화될 수 있는 지도단위로서 자리매김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기층에서 가지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체적으로 여대협회의에 임하면서 지구단위든 지역단위든 결정된 사항에는 책임을 지는 여학생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상층 단위에서도 기층의 문제의식을 잘 파악하고 논의를 심화시키며 정책적인 면에서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공히 연대조직의 핵심이라고 하는 '모범의 전파'를 통해 각 단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다시한번 지역운동으로서의 틀을 잡아내고 우리릐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 서여대협이 전여대협을 받아안으려고 하는가?

전여대협 건설의 요구는 어느해에나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전방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작년 94년이었습니다. 전여대협 중상위속에서 중상위회의를 보좌할 중앙집행위가 없음으로 인해 중상위회의가 내용적으로 심화되고 깊이있는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생산적인 중상회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위로서의 올바른 전여대협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중앙집행위가 요구되었고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주체의 의지로 지역의장들이 이후 전망속에 전여대협 집행위로서의 결의를 모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여대협 건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95년 전여대협을 어디에서 받아안을 것인가는 중상내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건준위'에서 '건설'을 하는 단계에서 조직의 최대한의 성과를 내어올 수 있는 곳, 주체의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곳,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아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고자하는 이유를 올 정세와 주체적 상황에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지역적 조건의 유리함이 있다.

서울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정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여러 여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작년 부경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 안으면서 지역

적인 한계가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신속하게 진행되어야할 투쟁, 여론화된어야할 사안에 있어서도 중앙집행위조차 부재한 상태에서는 지방이 가지는 취약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을 때 원활한 여대협사업의 전개와 전국적 여론화에서도 최대의 효과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시대적 역사적 요구이다.

95년, 어느 단위, 어떤 조직에서도 통일을 얘기하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대비하면서 어느 지역보다 사회의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원활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단체, 조직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때 내용을 폭넓고 풍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 주체의 요구이다.

서여대협 운동발전의 요구인 것입니다. 서여대협이 건설 8년간애 이루어온 성과점들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의 서여대협은 어느정도 담보상태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발전을 내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전여대협을 받아안으면서 서여대협의 기간의 운동을 잘 평가하면서 혁신을 내어오는 계기가 요구되어진다. 안으로만 집착하는 운동이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운동을 서여대협이 선두에서 돌파해 나감으로써 8년간 쌓아온 역량을 한층 더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여대협 '건준위'에서 건설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이름뿐만이 아닌 전여대협 건설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큰 단결로 힘과 지혜가 모아질 때 여학생운동은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50만 여학우의 자주여성의 삶을 개척하는 전여대협!

70년 후반부터 학생운동 전반에 걸친 흐름과 함께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여학생운동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후 학우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제 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투쟁에 여학단위로 참여하게 된다. 이후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연대운동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운동을 풀어 나갈 수 있고 그럴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가장 먼저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서여대협 발족이후 각 지역 여대협의 발족이 속속 뒤따랐으며 명실공히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지도, 집행해 갈 조직을 건설하였다. 이후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잇따른 여러 지역 여대협은 여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여학생운동의 성장으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운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89년 지역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전여대협 건준위모임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 이름만 있었고, 나와는, 우리 여학우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많이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여학우들의 투쟁속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외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의 여학생이 같은 고민으로 한자리에 모여들고 여학생들의 요구를 외치면서 '전여대협'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여대협을 나의 조직, 우리의 조직으로 느껴지게 합시다. 한총련 출범식은 백만 청년학생이 모이는 잔치입니다. 전여대협은 이런 전국의 백만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한마당'의 자리를 통해 기간의 활동과 함께해 왔던 투쟁을 총화해내고 더욱더 결의를 드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내단위만의 고립된 문제의식이 아니라 나와 같은 내용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다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단위마다의 모범을 들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하는 결의와 힘을 가져오는 자리였습니다. 출범식을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를 백만학우에게 알려내고 그 준비과정에서 복현이 주인이 되어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 보면서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백만 학우들과 조국통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합시다.

메모

메모